

SK케미칼 수원공장 주거용지로 전환

아세트이트 생산 울산·중국으로 이전 ... KCC 공장 부지도 상업용지로

SK케미칼과 KCC의 수원공장 부지 2곳을 각각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로 개발하는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다.

9월2일 수원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SK그룹 계열사가 출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에코맥스는 수원 정자동에 위치한 SK케미칼의 제2종 일반공업지역 32만6974㎡를 용적률 200%의 제2종 일반주거용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코맥스는 부지 가운데 공동주택용지 18만5000㎡에 아파트 3576가구, 공원용지 4만3076㎡에 1000석의 대공원장과 문화예술단체 사무실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문화예술회관은 완공 후 시에 기증된다.

이밖에 근린생활용지 4871㎡, 녹지 3만7666㎡, 학교 1만2000㎡, 도로 4만3007㎡가 조성된다.

SK케미칼은 현재 수원공장에서 아세트이트(Acetate) 생산라인 일부를 가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생산라인을 울산과 중국으로, 연구인력을 판교로 각각 이전할 계획이다.

KCC도 수원 서둔동 일대의 회사소유 부지 17만㎡를 포함, 공업지역 27만3210㎡를 제 1, 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키로 하고 2008년 11월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를 제출했다.

KCC는 대형상업용지 7만6000㎡, 중소형상업용지 9000㎡, 상업업무복합 7만5000㎡, 도로·공원·광장 기반시설용지 10만3000㎡, 주거용지 8000㎡로 개발할 계획으로 대형상업용지 7만6000㎡를 롯데쇼핑에 장기 임대해 롯데쇼핑이 백화점과 마트, 영화관, 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쇼핑몰을 2012년 상반기 개장할 예정이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02>